

한국 아동·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: 2011 아동·청소년 인권실태 조사

임희진 연구위원 · 김현신 전문연구원

Vol.2 2012. 05.

한국 아동·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

: 2011 아동·청소년 인권실태 조사

개요

| 조사목적 |

- ▶ 『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』는 우리나라 아동·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,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조사임. 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(승인번호: 제40201호)로,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, 홀수년도에는 생존권·보호권 영역, 짝수년도에는 발달권·참여권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.
- ▶ 조사목적은 우리나라 아동·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인권지표를 산출함으로써, 우리나라 아동·청소년 권리 양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·장기적 관점에서 아동·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.

| 조사대상 |

- ▶ 전국 초등학교 4~6학년, 중학교 1~3학년, 고등학교 1~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

[표1]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

		사례수(명)	비율(%)
전체		9,297	100.0
성별	남자	5,019	54.0
	여자	4,278	46.0
교급	초등학교	3,381	36.4
	중학교	3,090	33.2
	일반계고	2,149	23.1
	전문계고	677	7.3

| 조사방법 |

- ▶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

| 조사기간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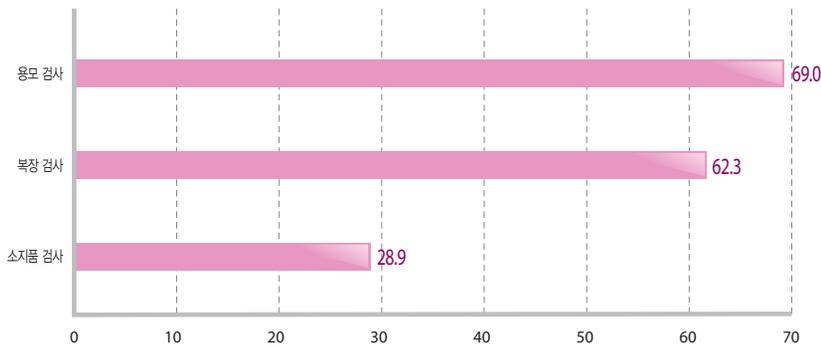
- ▶ 2011년 6월 3일 ~ 7월 4일

학교에서의 용모 · 복장 · 소지품 검사 경험률 및 인권침해 인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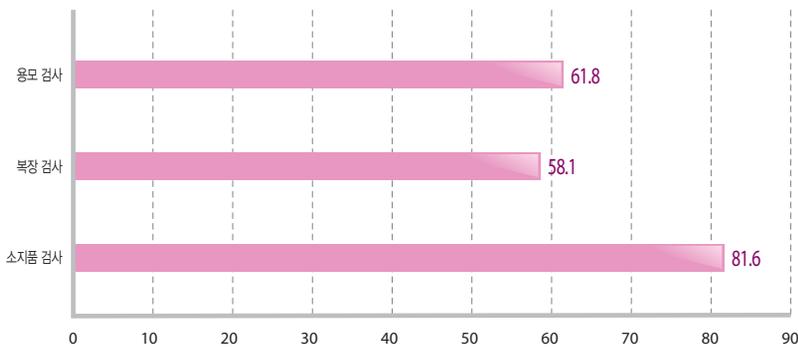
● 중 · 고등학교에서의 용모 · 복장 · 소지품 검사 및 통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, 중 · 고등학생들은 이를 인권침해로 인식

– 학교에서의 용모 검사, 복장 검사, 소지품 검사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, 중 · 고등학생들 중, 용모 검사는 69.0%, 복장 검사는 62.3%, 소지품 검사는 28.9%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용모 · 복장 · 소지품 검사 및 통제는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. 특히, 용모와 복장에 대한 검사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음.



[그림1] 학교에서의 용모 · 복장 · 소지품 검사 경험률(%)

–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모 및 복장, 소지품 검사가 인권침해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중 · 고등학생들 중, 용모 검사는 61.8%, 복장 검사는 58.1%, 소지품 검사는 81.6%가 인권침해인 것으로 인식, 특히 소지품 검사를 가장 인권침해로 생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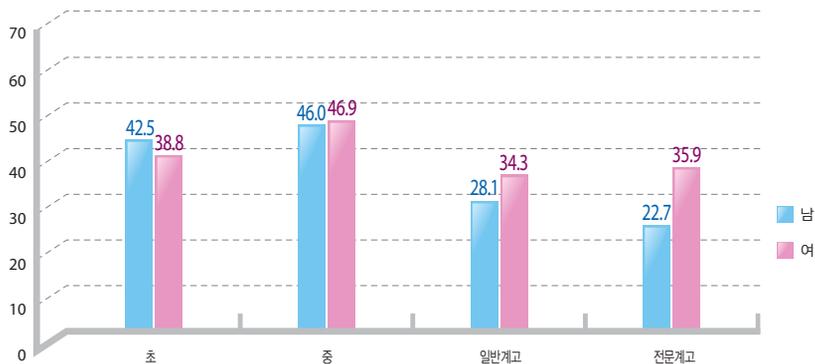
[그림2] 학교 용모 · 복장 ·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(%)

체벌 경험률 및 부정적 인식률



- 최근 1년간 초·중·고등학생의 2~3명 중 1명은 체벌을 경험하였고, 가정에서의 체벌은 여학생이, 학교에서의 체벌은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
- 전체적으로 중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, 초등학생은 부모에 의한 체벌을, 고등학생은 교사에 의한 체벌을 더 많이 경험
- 2명 중 1명 이상은 체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, 특히 교사에 의한 체벌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

- 최근 1년간 39.4%의 아동·청소년이 부모에 의한 체벌을 경험하였다고 응답
- 남학생의 38.7%와 여학생의 40.2%가 최근 1년간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체벌 경험률이 높았음.
- 초등학생의 40.7%, 중학생의 46.4%, 일반계 고등학생의 30.9%, 전문계 고등학생의 28.3%가 부모로부터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, 중학생, 초등학생, 고등학생 순으로 체벌 경험률이 높았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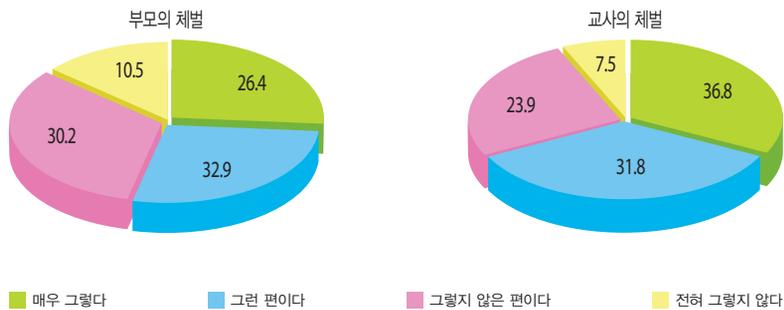
[그림3] 부모에 의한 체벌 경험률(%)

- 최근 1년간 38.4%의 아동·청소년이 교사에 의한 체벌을 경험하였다고 응답
- 남학생의 46.1%와 여학생의 29.4%가 최근 1년간 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,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이 높았음.
- 초등학생의 21.4%, 중학생의 48.9%, 일반계 고등학생의 47.3%, 전문계 고등학생의 46.8%가 최근 1년간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, 중·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4]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(%)

- 아동·청소년들은 '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'라는 질문에 전체의 59.3%가 '그렇다'고 응답하였으며, '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'라는 질문에는 68.6%가 '그렇다'고 응답하여, 2명 중 1명 이상이 체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, 특히 교사에 의한 체벌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
- 여학생의 경우 '부모와 교사가 체벌을 가하면 안된다'에 각각 64.3%, 72.3%가 '그렇다'고 응답하였고, 남학생의 경우 55.0%, 65.5%가 '그렇다'고 응답하여,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체벌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
- 초등학생의 71.3%와 77.7%가 부모나 교사의 체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,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이 더 높았음.



[그림5]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(%)

모욕적인 말 · 욕설 경험률 및 부정적 인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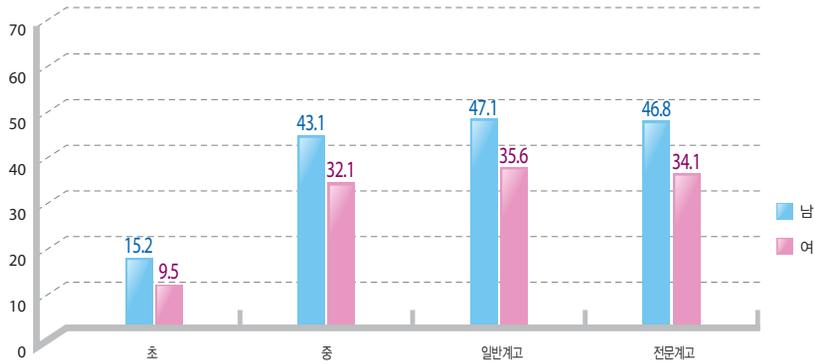
- 최근 1년간 초·중·고등학생의 약 3명 중 1명은 부모나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경험
- 남자 고등학생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가장 많이 경험
- 10명 중 8명 이상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, 특히 교사에 의한 경험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

- 최근 1년간 38.4%의 아동·청소년이 부모에 의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
- 남학생의 38.8%와 여학생의 38.0%가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·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경험률이 다소 높았으나,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·고등학생의 경우만을 보았을 때는 여학생의 경험률이 더 높았음.
- 초등학생의 29.2%, 중학생의 44.4%, 일반계 고등학생의 42.7%, 전문계 고등학생의 44.3%가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·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, 중학생, 고등학생, 초등학생 순으로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말·욕설 경험률이 높았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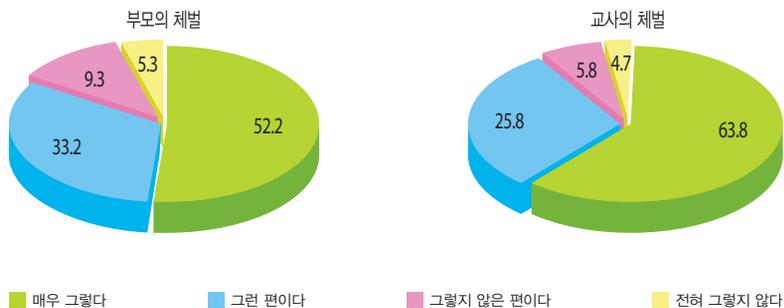
[그림6] 부모에 의한 모욕적인 말·욕설 경험률(%)

- 최근 1년간 29.9%의 아동·청소년들이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·욕설을 경험하였다고 응답
- 남학생의 34.5%, 여학생의 24.5%가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·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하여,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률이 높았음.
- 초등학생의 12.5%, 중학생의 38.0%, 일반계 고등학생의 42.0%, 전문계 고등학생의 41.4%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, 교급이 올라갈수록 경험률이 높았음.



[그림7]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·욕설 경험률(%)

- 아동·청소년들은 '부모가 자녀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'라는 질문에 전체의 85.4%가 '그렇다'고 응답하였으며, '교사가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'라는 질문에는 89.6%가 '그렇다'고 응답하여, 대부분의 아동·청소년들이 모욕적인 말·욕설을 부정적으로 인식
- 여학생의 90% 이상, 남학생의 80% 이상이 부모나 교사가 모욕적인 말·욕설을 하면 안된다고 응답하였으며,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욕적인 말·욕설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함.
- 부모의 모욕적인 말·욕설에는 초등학생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, 교사의 모욕적인 말·욕설에는 고등학생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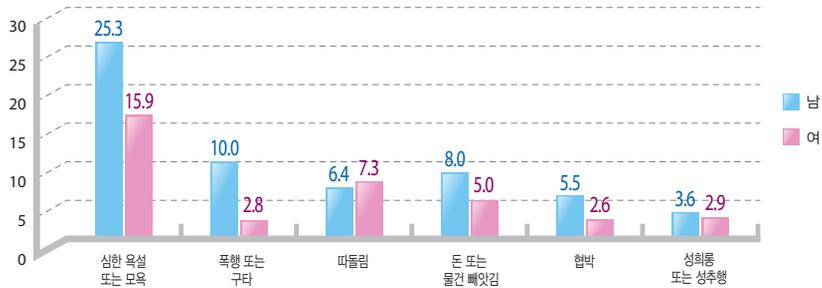
[그림8] 모욕적인 말·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(%)

학교에서의 피해 경험률 및 피해 시 대처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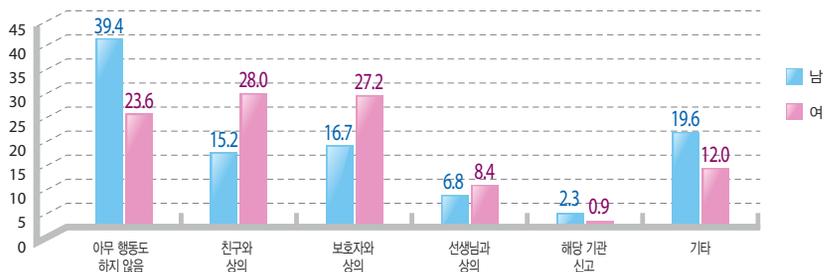
● 초·중·고등학생의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률은 남학생이 더 높고, 피해 시 대처는 여학생이 더 적극적

- 최근 1년간 21.0%의 아동·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, 선·후배, 친구들로부터 '심한 욕설이나 모욕'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, 초등학생보다는 중·고등학생이, 저소득층 아동·청소년의 피해 경험률이 더 높았음.



[그림9] 학교에서의 비행 및 일탈 행동 피해 경험률(%)

- 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 중 33.4%가 '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'고 응답하였으며, 20.7%가 '부모님 혹은 보호자와 상의한다', 20.1%가 '친구와 상의한다'고 응답
- 남학생의 경우 '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39.4%로 가장 높았던 데 반해, 여학생의 경우 '친구' 혹은 '보호자'와 상의한다가 각각 28.0%, 27.2%로 가장 높아 여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함.
- 초등학생의 경우 '부모님과 상의'하여 대처하는 경우가 37.2%로 가장 높았으나 중·고등학생의 경우 '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가장 높아, 교급에 따라 학교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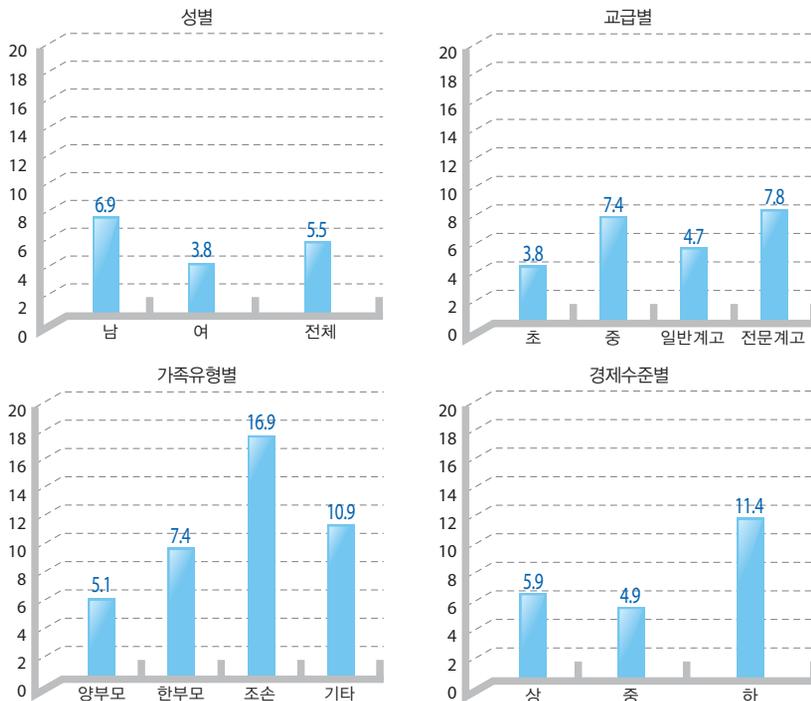
[그림10] 학교에서의 피해 시 대처방법(%)

가출 경험률 및 가출 원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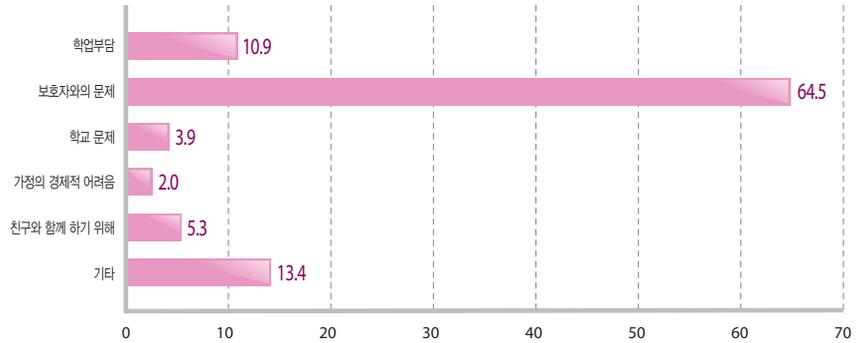
● 초·중·고등학생의 5.5%는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고, 특히 조손가정과 저소득층 아동·청소년의 경험률이 높으며, 가출 원인은 '보호자와의 문제(불화, 폭행, 간섭 등) 때문에'가 가장 큰 비중

- 최근 1년간 초·중·고등학생의 5.5%는 가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
- 남학생의 6.9%, 여학생의 3.8%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, 남학생의 가출 경험률이 더 높았음.
- 중학생의 7.4%, 전문계 고등학생의 7.8%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, 각각 3.8%와 4.7%의 가출 경험을 보인 초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가출 경험률이 높았음.
- 조손가정의 아동·청소년이 16.9%의 가출 경험률을 보여, 한부모 가정(7.4%)과 양부모 가정(5.1%)의 아동·청소년보다 2배 이상의 가출 경험률을 보였음.
-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아동·청소년의 11.4%가 가출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여,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이거나 중간인 아동·청소년보다 가출 경험률이 높았음.



[그림11]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(%)

-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는 아동·청소년의 64.5%는 부모님(보호자)과의 불화, 폭행, 간섭 등의 이유로 가출한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12] 아동·청소년의 가출 원인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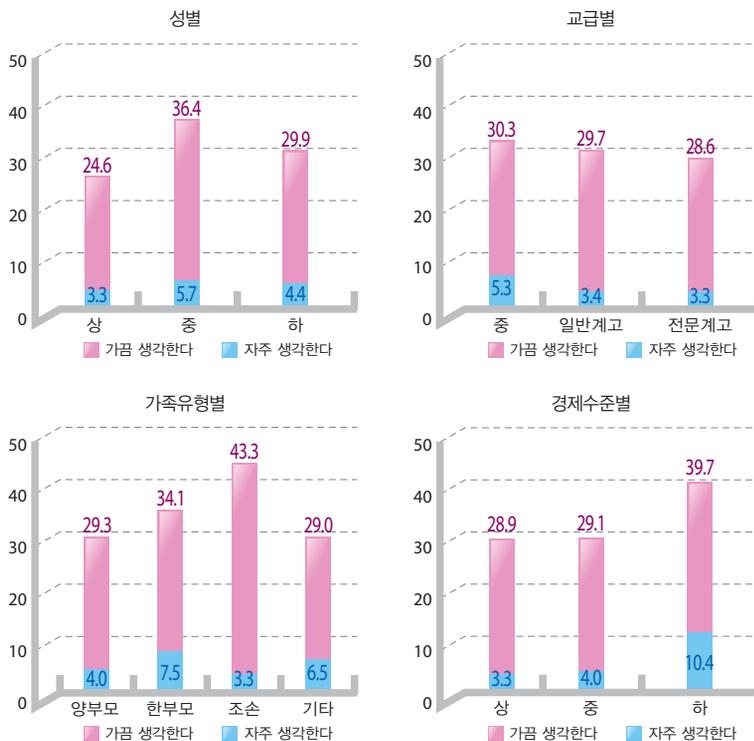
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 및 원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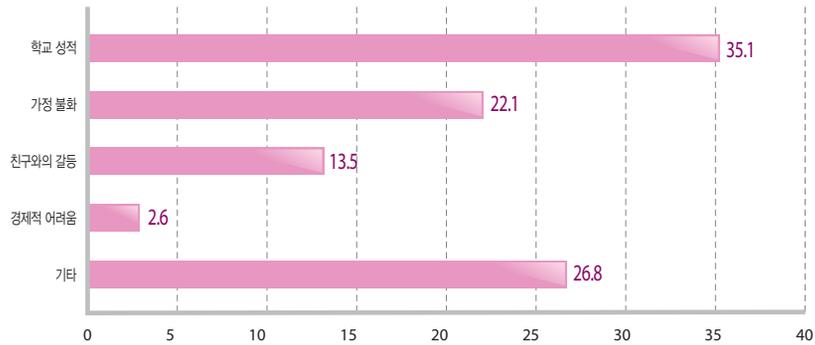
● 중·고등학생의 34.3%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, 전체의 4.4%는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

● 원인은 학교 성적, 가정 불화, 친구와의 갈등

- 최근 1년간 초·중·고등학생의 34.3%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
- 여학생의 42.1%, 남학생의 27.8%가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,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도 여학생이 5.7%, 남학생이 3.3%로 나타나,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자살을 생각함.
-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학교 성적(35.1%)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,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(22.1%), 친구와의 갈등(13.5%) 순임.



[그림13] 최근 1년간 자살사고(思考)율(%)



[그림14]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주된 원인(%)

- 중학생이 35.7%로 고등학생보다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라는 응답을 더 많이 함.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34.2%의 중학생과 43.1%의 일반계 고등학생은 학교 성적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, 전문계 고등학생은 가정 불화(37.0%)를 자살 생각의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
-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40% 이상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고, 그 주된 원인은 가정불화(28.6%, 37.8%)인 반면,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33.3%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고 그 주된 원인은 학교 성적(38.1%)인 것으로 나타나, 가족유형별로 자살에 대한 생각 경험률과 그 원인에서 차이를 보임.
-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청소년의 50.1%가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있었고 그 주된 원인은 가정 불화(23.9%)인 반면, 중위층이나 상위층 청소년의 약 32~33%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, 그 주된 원인은 학업 성적(35.8%, 46.3%)인 것으로 나타나,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살 생각 경험률과 원인이 다름.

수면시간



● **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초등학생 8시간 31분, 중학생 7시간 18분, 일반계 고등학생 5시간 50분, 전문계 고등학생 6시간 24분으로 중·고등학생의 수면 부족 심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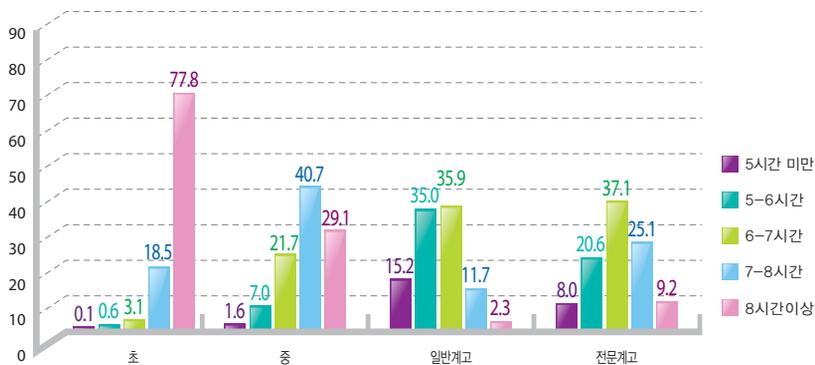
- 평일 아동·청소년의 평균 취침시간은 밤 11시 37분, 평균 기상시간은 7시 14분으로, 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 20분이었음.

※ 10-17세의 적정 수면시간은 8시간 30분 ~ 9시간 20분(미국수면재단, 2011)

교급별	시간							평균 수면시간
	22	23	24	1	2	3	4	
초등학생	22:43 ~ 07:14							8시간 31분
중학생	23:44 ~ 07:03							7시간 18분
일반계 고등학생	24:43 ~ 06:33							5시간 50분
전문계 고등학생	24:08 ~ 06:32							6시간 24분

[그림15] 교급별 평일 평균 취침·기상·수면 시간

- 초등학생의 77.8%가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반면, 70% 이상의 중학생과 90% 이상의 고등학생이 8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음.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약 15%는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을 보여 심각한 수면 부족 현상을 보임.



[그림16] 교급별 평일 수면시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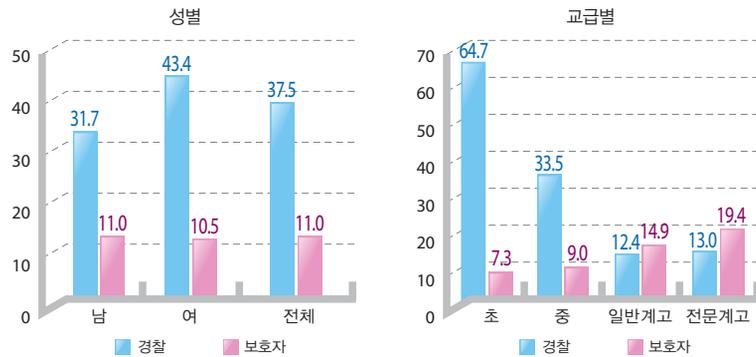
성피해 경험률 및 의논 대상



● 초·중·고등학생의 3.4%가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, 성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의 과반은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, 29.9%는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으며, 11%만이 경찰 신고

● 의논 상대는 친구(37.9%), 보호자(21.6%) 순

- 최근 1년간 아동·청소년의 3.4%가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
- 가정 경제수준이 하위층인 아동·청소년의 7.8%가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, 중위층(3.0%)과 상위층(3.5%)의 아동·청소년보다 성적인 피해 경험률이 높았음.



[그림17] 성피해 경험의 보호자 인지도 및 경찰 신고율(%)



[그림18] 성피해 의논 대상(%)

- 성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이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알리는 비율은 37.5%로 피해 아동·청소년의 과반은 이를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, 남학생(31.7%)이 여학생(43.4%)보다 알리는 비율이 더 낮았음.
- 초등학생의 60% 이상이 부모에게 성적인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반면, 중학생의 33.5%, 고등학생의 12~13%만이 부모에게 알려 교급이 낮을수록 성피해 경험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알리는 비율이 높았음.
- 성적인 피해 경험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1.0%인 것으로 나타나, 10명 중 1명 정도 만이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으며, 고등학생(일반계 14.9%, 전문계 19.4%)이 초등학생(7.3%)이나 중학생(9.0%)보다 경찰신고율이 높았음.
- 아동·청소년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, 37.9%가 주로 친구와 의논한다고 응답한 반면, 29.9%는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3~4명 중 1명은 자신의 성적인 피해를 혼자 감당함.

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
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

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/10층
114 Taebongro, Seocho-Gu, Seoul 137-715 Korea
Tel. 02-2188-8800 Fax. 02-2188-8869 www.nypi.re.kr

